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3호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 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인

유승민의 대한체육회, '인사 태풍' 부나?

권종오 SBS 기자

문체부 징계 요청 거부하고 소송

정몽규 출마 길 터준 축구협회

김영준 조선일보 기자

올림픽이 끝나면 패럴림픽이 시작됩니다

올림픽에 버금가는 감동과 매력을 전한다.. 장애인 스포츠의 특별한 이야기

임종률 노컷뉴스 기자

발달장애 지적증 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체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체육 수업 강화해야 한다” ‘고군분투’ 특수 체육 전공한

교사들의 바람

김세훈 스포츠경향 기자

선수임원단 2만 2000여 명 방문 예상

전국소년체전 100일 앞둔 김해시 “성공 개최 만전”

이경민 부산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시민연대 2025년 정기총회 안내

안녕하세요, 체육시민연대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체육시민연대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일시: 2025년 2월 25일(화) 오후 4시
2. 장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3. 참가대상: 체육시민연대 회원, 체육 활동 및 사회 참여에 관심 있는 시민
4. 주요 안건
 - 개회 및 인사말
 - 2024년도 활동 및 재정 결산 보고
 - 2025년도 사업 계획 및 추진 전략 발표
 - 기타 안건(회원 제안 안건 및 자유 토론)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총회 개최 7일 전(2월 18일)까지
sports-cm@hanmail.net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우리 조직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모든 회원이 함께 소통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중한 의견이

체육시민연대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회에서 뵈기를 기대합니다.

체육시민연대

유승민의 대한체육회, '인사 태풍' 부나?

지난 1월 14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선출된 유승민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체육회 내부 개혁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28일 대한체육회 수장에 공식 부임하는 유승민 당선인은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체육회 인사를 비롯한 향후 계획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체육회 인사의 양대 산맥인 사무총장과 국가대표 선수총장 선임입니다.

먼저 체육회 행정을 총괄하는 사실상의 '2인자' 인 사무총장 후보로는 이병진 전 사무부총장과 박철근 전 사무부총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병진 전 부총장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출신으로 2016년 통합 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체육회에 합류했고 박철근 전 부총장은 처음부터 대한체육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사무총장 선임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문체부의 의견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휘할 국가대표 선수총장에는 '탁구 레전드' 김택수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결승에서 유승민 당선인이 중국 왕하오를 꺾고 금메달을 따낼 때 유승민 당선인을 지도했던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이변을 연출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을 보좌할 사무부총장 후보로는 신동광 훈련본부장과 김영찬 생활체육본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3세의 유승민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세대교체와 함께 노조 측의 평가도 상당히 반영될 전망입니다.

지난 10일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으로부터 '2024년 본받고 싶은 관리자상'을 받은 김보영 의과학부장과 안용혁 교육복지부장을 비롯해 IOC 위원 지원부에서 유승민 당선인을 도와온 김두일 IOC위원 지원부장 등도 본부장 발탁 가능성이 있는 간부들입니다.

또 유승민 당선인이 취임하면 부회장과 이사진이 전면적으로 교체되고, 각종 분과위원회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체육회를 8년 이상 이끌어온 이기흥 시대가 마감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승민 당선인이 인사 태풍에 버금가는 단안을 내릴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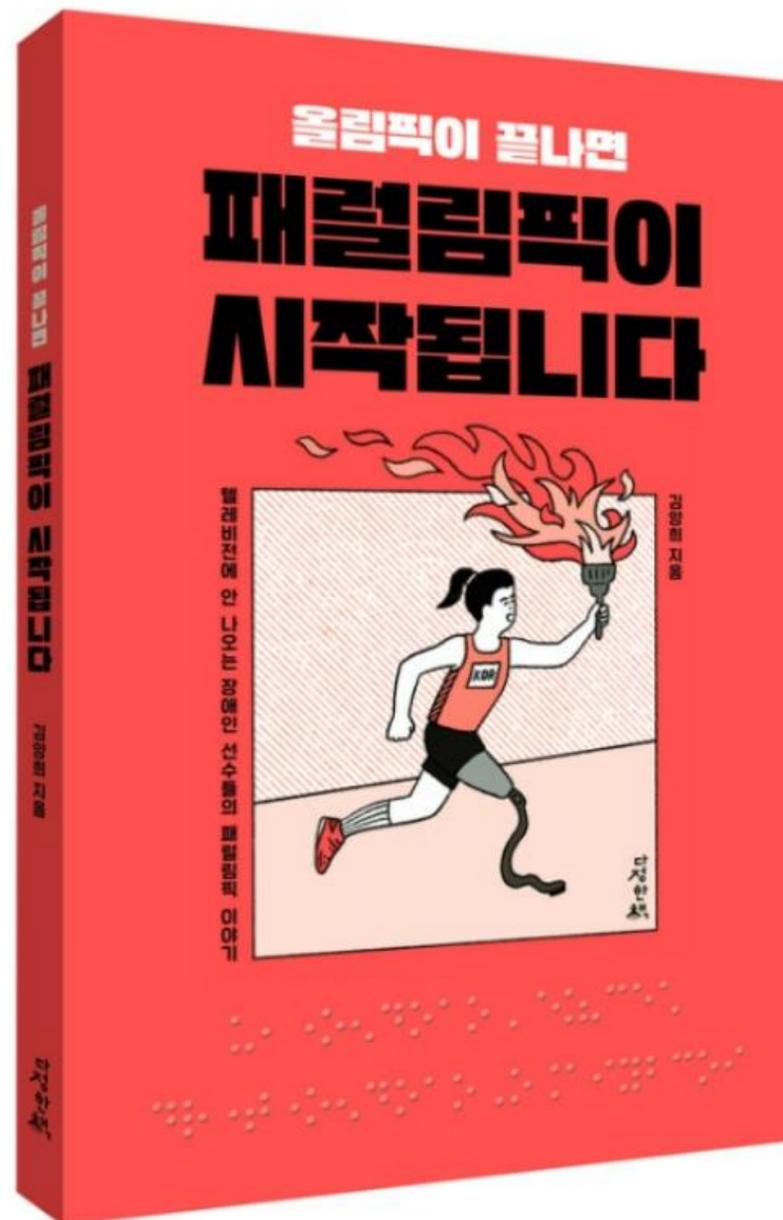
정몽규 출마 길 터준 축구협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징계 요구를 두고 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적 공방을 벌인다. 2일 축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정 회장 징계를 골자로 하는 문체부 특정 감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처분을 일단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 중징계를 내리라고 협회에 요구한 바 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 하자,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천안축구종합센터 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 등 협회 운영 비위에 정 회장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 징계 시한이 이달 3일까지였는데 협회는 이를 따르지 않고 소송으로 맞섰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 정지 이상 징계를 받으면 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 회장은 이 징계가 확정되면 차기 회장에 출마할 수 없었다. 출마 자격을 판단하는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도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안건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정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요구하는 운영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송을 냈다”고 했다.

차기 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허정무·신문선 후보 측은 협회 소송전이 정 회장 출마 자격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당초 축구협회장 선거는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허 후보가 제기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하루 전 받아들이면서 연기됐다. 협회는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지난달 23일 선거를 하겠다는 계획을 냈다가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를 다시 구성하고 선거인 추천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 등 선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고 있다. 빨리 절차를 진행해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올림픽에 버금가는 감동과 매력을 전한다... 장애인 스포츠의 특별한 이야기



장애인 스포츠 영웅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다.

25년 넘게 체육 현장을 누빈 한겨레신문 김양희 기자가 쓴 '올림픽이 끝나면 패럴림픽이 시작됩니다'(다정한책)는 제목의 책이다. 보치아, 골볼 등 생소한 종목부터 수영, 배드민턴까지 14개 종목에 참가한 24명의 선수 인터뷰와 종목 소개를 통해 장애인올림픽인 패럴림픽의 매력을 전한다.

김 기자는 지난 2021년에 열린 도쿄패럴림픽 당시 아들의 질문에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엄마, 왜 패럴림픽은 올림픽처럼 중계하지 않나요. 차별 아닌가요"라는 물음에 김 기자는 경기도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을 정기적으로 찾아 선수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또 지난해 파리패럴림픽에서 김 기자는 현장 취재했다. 각 종목의 특징, 선수들의 치열한 훈련 과정, 경기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를 통해 패럴림픽의 감동을 주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들려준다.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체육 수업 강화해야 한다” ‘고군분투’ 특수 체육 전공한 교사들의 바람

스포츠경향
김세훈 기자

2025.01.30

“발달장애·자폐증 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체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특수 교육과에서 체육을 전공한 특수 교사들의 바람이다. 김성광 특수교사(연천 전곡중), 성태훈 특수교사(이천 다원학교)는 최근 경기 이천장애인선수촌에서 ‘장애학생 통합체육지도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체육 콘텐츠를 특수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소개하는 행사였다.

■ “학생에 맞춘 개별화 교육”

발달 장애 학생은 학년에 상관없이 같은 특수학급에 배정된다. 특수 교사는 사범대 또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를 나와야 한다. 교원 자격증은 ‘특수 교사’로 나오며 전공은 별도로 명기된다. 김 교사는 성 교사는 특수 교사(체육 전공)다. 김 교사는 “학생들 인지능력, 지적 수준이 상이해 연초 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학생에 맞춰 개별화 교육계획을 짠다”며 “일반교사는 교안을 한개 만들지만 우리는 학생에 맞춰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사는 “국어, 수학, 사회, 진로도 함께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초중등은 학생 6명당 교사 한 명이, 고등은 4명 이상이면 두 명이 배정돼야 한다.

■ “과도한 행정 업무”

용인대 특수체육교육과를 졸업한 뒤 2021년부터 교편을 잡은 김 교사는 “특수 교사는 학생이 6명이라도 수준별, 과목별로 1대2, 1대3 수업을 진행한다”며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 수업 준비에 몰두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국체대 특수체육교육과를 나와 16년간 교편을 잡은 성 교사는 “소위 ‘특’자만 들어가면 모든 게 특수 교사에게 몰린다”며 “특수 학급 한 곳 관련 공문이 학교 한 곳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수 교사를 늘려주지 못한다면, 행정 업무 전담 인력이라도 총원되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 “함께 뛰어야 하는 수업”

성 교사는 “발달장애, 자폐성 학생은 자기 주도로 뭔가를 하기 힘들다”며 “신체 활동도 누군가 만들고 함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성 교사는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맡은 적이 있다. 그는 “체육관 확보부터 어렵다”며 “장애가 심한 학생은 한명씩 보조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힘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 체육수업을 받기도 한다. 성 교사는 “신체 능력이 떨어지거나 운동에 관심이 적은 비장애인 학생에 맞춰 수업 콘텐츠를 만들면 장애학생, 비장애학생이 함께 재미있게 체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장애가 덜한 학생,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 신체활동을 돕는다”며 “장애인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증가하는 게 희망”이라고 말했다.

■ “무관심, 과도한 요구, 억울한 오해”

경제력이 약하거나 심한 장애로 지친 부모는 교육에 무관심한 편이다. 준비물 준비도 안 되는 데다, 심지어 씻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도 있어 목욕도 시키고 빨래도 한다. 성 교사는 “사회화 교육을 받은 학생이 집에서 화를 내는 등 제어가 안되면, 부모가 교육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성 교사는 “밤낮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모로 오랜 기간 고생하는 교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몸집이 큰 학생은 주로 남자 교사가 담임을 맡는다. 성 교사는 “자해하려는 학생의 손목을 잡고 제어하면 상처, 멍이 생기는 수도 있다”며 “아무리 설명해도 민원을 제기하는 부모도 있다”고 말했다. 성 교사는 “일반적으로 특수 교사 중 20% 정도가 여성”이라며 “여성 교사들은 성희롱, 성추행에도 아이들을 위해 꼭 참고 일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 “특수하다?”

열심히 일하는 특수 교사들은 다재다능하며 재미있는 교사로 인정받는다. 김 교사는 “도 아니면 모”라고 특수 교사를 정의했다. 김 교사는 “특수 학습에는 관심이 덜하고 학업 성취에 대한 부담도 적으며 교육 효과도 작다”며 “대충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성 교사는 “특수 교사들은 ‘특수하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며 “특수 교사라는 것과 함께 ‘유별나고 극성맞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표현”이라고 말했다. 성 교사는 “장애학생 인생 최고 시기인 학창시절을 소중하게 여기고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교사들에게 부탁하고 있다”고 전했다.

■ “느려도 변한다”

김 교사는 “버스 타기, 음식 사먹기, 거스름돈 받기 등 일상 생활 속 평범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특수교육의 목표”라며 “이를 잘 해내면서 기뻐하는 학생들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오랜 시간 끈기와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학생이 학교에 오는 걸 좋아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슬픔은 장애 학생의 사망이다. 성 교사는 “근이영양증을 앓는 학생이 사망한 게 충격적이었다”며 “죽음이 임박한 걸 느끼고 관계를 끊으려는 학생을 보는 것도 너무 괴로웠다”고 말했다.

전국소년체전 100일 앞둔 김해시 “성공 개최 만전”

경남 김해시가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을 100여 일 앞두고 체전시설 보완, 교통·숙박 대책, 분위기 조성 등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주 개최지로서 도내 2만 2000명의 선수단과 임원단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손님맞이에 집중한다.

김해시는 오는 5월 도내 각 시·군에서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개회식은 오는 5월 13일 오후 3시에 구산동 김해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며 각종 문화행사로 꾸며질 전망이다.

행사는 전국장애학생체전이 먼저 열린다. 개회식 날인 13일부터 16일까지 도내 5개 시·군에서 탁구·배구 등 17개 종목이 펼쳐진다. 이후 전국소년체전이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도내 15개 시·군에서 이어진다. 육상과 태권도 등 36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김해시 체육지원과 관계자는 “장애학생체전 선수단과 임원단 4000명, 소년체전 선수단과 임원단 1만 8000명을 더해 2만 2000명이 전국에서 경남을 찾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시합을 치르고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치른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행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수립한 체전 준비 기본계획에는 행사 추진 체계 구축, 체전시설 보완, 시민 참여 확대 유도, 교통·숙박 대책 마련, 체전 분위기 조성 등 분야별 과제가 담겼다.

두 체전 기간 김해시에서도 17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지는 만큼 선수들이 평소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경기장 20곳의 시설을 점검한다. 또 경남도(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해 도내 각 경기장을 대상으로 가설 텐트,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임시 경사로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각 경기장의 공·승인 절차를 마치고 최적의 경기장 상태를 갖추기로 했다.

온오프라인 홍보도 활성화한다. 오는 4월 열리는 가야문화축제 현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시·군 통합 30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 홍보영상 제작, 김해시 공식 SNS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될 전망이다.

독서대전 사전행사도 체전과 비슷한 시기에 수릉원에서 진행해 시민 시선을 모으기로 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미래 스포츠 주역들이 김해를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손님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2025년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장애청소년 재능개발지원사업' 신규장학생 모집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1311351353790806>

유승민 만난 진종오 의원 "국회, 체육계 혁신 적극 지원"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3090700007?input=1195m>

제주도, 전국체전 대비 공공체육시설 대대적 개선 나선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20311272317580>

2036 올림픽 후보도시 D-25...전북체육회, 모든 역량 쏟는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3_0003050900

체육공단, 스포츠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https://www.sportsworldi.com/newsView/20250203508608>

대전 서구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평생학습·체육·돌봄·주차

https://www.nocutnews.co.kr/news/6286206?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203113210

https://www.nocutnews.co.kr/news/628615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20311308

강원도체육계열 우수학생선수 국외체험연수 실시

https://www.nocutnews.co.kr/news/628615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2031130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279671>

"'1학교 1운동'으로 K스포츠 꿈나무 키워낼 것"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279671>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